교 회 소 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12월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전야제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염두에 두면서 개인의 일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 12월 25일(금) 오전 11시

   성탄 축하 전야제 - 12월 24일(목)
   1부 오후 5시 30분: 성탄 축하 찬양
   오후 6시: 저녁식사
   2부 오후 7시: 축하 잔치

2. 각 선교회 총회가 12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3.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 새 가족 환영회가 오는 28일 (토)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 여선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5. 오는 11월 25일 수요예배는 4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을 결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 St David's 교회 건물은 오클랜드 북 노회 소속이 되어 관리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로 여기고 많이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1월교회사역일지
11월 2일 (월)
다니엘 기도회
11월 8일 (주일)
인도자 공부
11월 25일 (수)
4남선교회 헌신예배
11월 28일 (토)
새 가족 환영회
11월 29일 (주일)
대림절 1

11월 기 도 순 서
11월 22일 (주일)
박덕철 장로
11월 25일 (수)
4남선교회 헌신예배
11월 29일 (주일)
박병민 장로
12월 2일 (수)
김민경 집사

11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22권 46호 **2020.11.15**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금요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채령 자매

다 음 주 일
김준섭 형제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찬양단
예배로부름	역대상 16:8-10	인도자
✤찬 송	35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66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김교섭 장로
성 경 봉 독	**창세기 16:1-6**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님은 아십니다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아브람의 실수**	이태한 목사
찬 송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11월 2일 ~ 11월 22일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오후 7시에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 교 란

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 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이곳으로 온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집에 인터넷이 안되어 모든 분들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무사히 긴 비행을 마치고 잘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 공항에는 N 목사님 부부와 M 자매 가정이 꽃을 들고 반갑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도착 후 다음 날 학원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학원은 제한된 숫자로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학원에서 일할 수 없어서 저를 기다리는 학생들과는 몇 달 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모여 예배: N 목사님 댁에 모여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고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다가 이곳 작은방에 마스크 없이 붙어 앉아 찬양과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많이 놀랍지만 다들 개의치 않습니다. 밖에서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진 않습니다.

바퀴벌레 홍수 인터넷: 집주인과 함께 법률사무소에 가서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협력해 준 집주인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은 좀 난감합니다. 널브러진 바퀴벌레 시체와 그 배설물, 계속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모습에 놀랍니다. 지난주에는 집주인과 기술자가 와서 망가진 샤워기와 물이 새는 곳을 고쳤는데 파이프에서 물이 터져 그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랫집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은 아직도 안 됩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다니면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집은 상태가 안 좋고 보관하던 짐 박스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부엌에서 햇볕을 쬐며 찬양을 듣는데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주의 성령의 여기 계시니까"라는 찬양 가사가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제 상황이,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부엌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도 그런 곳에서 (이 집처럼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 살아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해하신다는 생각에 깊은 감동과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계속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고 한국에서 올 서류가 이곳에 빨리 도착하도록,
-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나 눔 란

2020년 11월 8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설득하시는 하나님 2〉 창세기 15:7-21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처음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15:7)라고 말씀하시며 지난 믿음의 여정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에 처음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고난과 의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돌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히 13:8)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설득에도 아브라함은 항의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15:8). 하나님의 설득에 못한다고 한 모세와 도망가기까지 한 요나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는 것은 자녀 된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2)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며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도록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을 설득해 주셨습니다(15:9,17) 그러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이 가는 일방적 언약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뜻은(15:17) 아브라함에게는 축복만 주시고 이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저주는 하나님만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맺으며 사체 위에 내리는 솔개를 쫓았습니다(15:11). 주님께 순종할 때 겪는 솔개의 공격을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시 37:7)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15:12).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솔개를 쫓으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15:8)고 400여 년 후에 완성될 미래를(15:13)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께는 시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다 이루었다"하는 현재 완료형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며 아직 죄인인 우리도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성취가 이미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 해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한시적인 세상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고후 6:10).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엡 3:8) 모르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설득당하는 성도, 그 설득하심에 응답하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6: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